리뷰논문 정보화정책 제19권 제2호, 2012년 여름호, pp.3~20

SNS에 관한 사회학 연구의 동향과 쟁점*

이 명 진**, 박 현 주***

요 약 이 연구는 최근 SNS 이용자에 관한 여러 종류의 학술적 연구 중 사회학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 동안 발표된 SNS에 관한 사회학 연구를 공간적 특성, 관계형성, 사회적 영향 등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SNS가 형성한 공간이 갖는 다양한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공간 참여가 개인의 태도와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둘째, 관계형성에 관한 연구는 신뢰와 사회자본 개념을 기반으로 SNS를 통해 어떻게 관계와 사회자본이 형성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공통적인 관심은 SNS를 기반으로 어떠한 상호관계가 형성되고, 어떠한 조건이 사회구성원 사이에 형성되는 신뢰와 사회자본을 확충하는가에 있다. 셋째, 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SNS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SNS를 통한 사회운동과 정치참여를 주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SNS가 현실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의 형태와 정도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연구가 필요한 모든 범위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향후에 사회통합, 공공복리 같은 다양한 사회학 개념과 연계되어 SNS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이버 공간, 신뢰, 사회자본, 사회운동, 정치참여

The Trend and Issues of Sociological Studies of Social Network Service

Myoung-Jin Lee, Hyun-Ju Park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 and issues of sociological studies of social network service(SNS). For this purpose, the studi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he first type of study concerns spatial characteristics of SNS. It deals with the impact of such SNS usage on individual attitudes and behaviors. The second type of the study focuses on the formation process of interrelationship among users. It is based on sociological concepts such as trust and social capital. The last type of study emphasizes the impact of SNS on society. The study includes the issues of social movemen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future study of SNS, more diverse sociological subjects, such as social integration, exclusion, public welfare, and affective support need to be dealt with.

Keywords: social network service(SNS), cyberspace, trust, social capital, social movement, political participation

2012년 6월 7일 접수, 2012년 6월 8일 심사, 2012년 6월 26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한국연구재단-2009-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토대연구)-KRF-2009-322-B00013)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leemj@korea.ac.kr)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hjparksoc@gmail.com)

I. 머리말

최근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NS 관련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고, SNS를 통한 정보의 교류가 급증하고, SNS를 통한 유명인의 게시물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SNS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개인 사이에 소통의 빈도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SNS에 관한 다양한 학문적 성과도 발표되고 있다. SNS의 기술적이거나 산업적인 측면(서윤교 외, 2011; 성민경 외, 2012)뿐만 아니라, SNS가 사회 각 부문에 미친 영향(윤성이, 2008; 설진아, 2009; 송경재, 2010; 장덕진, 2011, 박상호, 2012)을 다룬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SNS에 관심이 높아진 이유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싸이월드,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같은 SNS 이용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1'에 의하면 12~49세 인터넷 이용자 중 76.4%가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대표적인 SNS 중 하나인 트위터 이용자는 544만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0년에 비해 8배 이상 늘어난 숫자이다. 그리고 페이스북 사용자도 2011년 12월 기준으로 535만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2).

둘째, 이용자와 게시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SNS 도입 초창기에는 정치인, 사회운동가, 연예인의 SNS 게시물이 큰 화제가 되었다. 물론 아직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상위 순위는 이러한 유명인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설가, 교수, 법조인, 의료인 같은 전문직 종사자의 SNS 게시물이 주목받는 등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법관의 SNS 게시 내용이 사회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셋째, 이용자 수의 급증에 따라 SNS의 사회적 파급력이 커졌다. 실제로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트위터 등이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야당에 대한 지지율을 높였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다(정용인, 2011). 이러한 파급력의 증가는 사회적 논란을 낳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한 법관의 SNS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이 법조인의 SNS사용 권고안을 내놓기도 하였다.[1)]

넷째, 일상생활에서도 SNS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SNS가 다양한 유형의 마케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취업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긍정적인 방식으로만 SNS가 사용되는 것만은 아니다. 기업인사 담당자가 구인자의 배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SNS를 찾아보기도 한다(오세욱, 2012). 어떤 경우에는 SNS가 근로자의 감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개인 정보나 사생활이 쉽게 유출될 수도 있다. 이러한 논란은 외국에서도 자주 일어난다. 예를 들면, 2011년 영국 런던의 애플스토어 종업원이 자신의 SNS에 회사의 부정적인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종업원은 영국법원에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애플사의 해고 결정을 인정하였다(CNET, 2011).

물론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이용자 네트워크의 영향력은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싸이월드, 다음 아고라 등을 통해 많은 온라인 이용자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시해 왔다. 다만 이전의 온라인 네트워크와는 달리 SNS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 속도, 쟁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젊은 층을 위주로 특정 쟁점에 관해 제한적

1) 이러한 사회적 논란은 법관 개인의 자유나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사회에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의 혼란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이명진, 2012).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요즘엔 연령층이나 직업의 구분 없이 거의 모든 쟁점에 관해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SNS의 성장은 무엇보다도 트위터, 페이스북, 팟캐스트라는 최근 온라인 매체의 기술적 특성과 스마트폰 같은 하드웨어의 보급과 확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특기할만한 점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SNS의 급증이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즉 한국사회의 SNS 참여 수준과 사회적 영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큰 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사회의 SNS 성장은 단지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정보 인프라의 발달보다 더 근본적인 사회적 조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인의 국민성을 그 이유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근 '재스민 혁명'[2]이 몰아친 중동권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한국인의 국민성이 SNS 확산의 중요 요인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박찬웅, 2012).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문인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사용하는 SNS에 열광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관계망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주는가? SNS에 관한 사회학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 같은 연구 문제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주기 위하여 이 분야에서 SNS에 관한 사회학 연구의 추이와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기존 연구를 주요 사회학 개념과 연구 추이와 동향에 근거하여 몇 가지 분야로 나누고자 한다. 먼저 SNS에 관한 연구는 초창기 SNS가 갖는 공간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가 많았다. 이후 이러한 관심은 SNS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네트워크와 이용자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와 이용자 집단이 현실 사회에서 갖는 사회적 영향을 다양한 분야에서 살펴보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따라 기존 논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가 다루고 있는 연구 쟁점과 주제의 변화가 어떠한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검토 개념틀

1. SNS 개념과 정의

현재 한국사회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SNS가 존재하고 있다. 이때까지 SNS는 하나의 정형화된 유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SNS가 온라인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모여서 구성하고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만큼 SNS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SNS의 다양성을 포함한 개념과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즉 SNS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서 개인이 정해진 시스템 내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연결망을 공개하며, 타인의 연결망을 살펴보고 이러한 연결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서비스(Boyd, et al., 2007)라는 정의를 사용한다.[3] 이 정의에 따르면, 개인의 주체적인 참여와 다양한 유형의 참여가 SNS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SNS는 일반적인 온라인커뮤니티 서비스와 다른 특징이 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SNS가 온라인커뮤니티 서비스와 혼동되어 사용되기

2) 재스민 혁명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집트의 경우에 관하여 설진아(2012) 참조
3) Boyd, et al.(2007)은 'Social Network Sites'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Social Network Service를 정의하는데 사용하였다.

도 한다. 그러나 온라인커뮤니티 서비스는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사용자들이 특정한 공간에 모여서 활동하는 집단 중심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SNS는 사용자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즉 사용자 개개인이 중심이 되어 다른 사용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사용자들 간의 관계가 축적되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온라인커뮤니티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고상민 외, 2010). 이러한 인맥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SNS로 싸이월드,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 등을 들 수 있다.[4] 〈표 1〉은 SNS의 이러한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행위와 집단형성이라는 측면만이 SNS의 특징이라고 보기 어렵다.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환경, 정보통신기기, 콘텐츠와 정보의 유형이라는 측면도 추가적으로 SNS의 특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SNS는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달리 모바일 정보통신기기를 기반으로 한다. 모바일 정보통신기기는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언제나 제공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 즉 사용자는 네트워크나 정보통신기기의 종류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모바일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환경에 기반을 둔 모바일 정보통신기기와 SNS의 결합은 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SNS는 그 동안 자주 언급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융합 콘텐츠를 유통한다. 융합(Convergence)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개별 미디어영역이 서로 수렴되고 고유한 서비스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변화를 의미한다. 미디어 융합은 간단히 말해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각각 별도의 영역에 존재하던 서로 다른 종류의 미디어들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공통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하나의 터미널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현상을 가리킨다(Jenkins, 2006; 김신동, 2008).

이러한 환경적, 기기의 특징에 기반을 둔 SNS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각종 모바일 기기의 증가와 더불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5] 마이크로블로

〈표 1〉 SNS의 특징

구분	내용
참여 (Participation)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호간에 자발적인 지식, 의견, 견해 및 피드백을 공유함. 이러한 활동은 미디어와 청중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음
공개 (Openness)	사용자간의 피드백 및 참여에 대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간의 정보 공유, 댓글, 피드백, 투표 등을 촉진
대화 (Conversation)	정보제공자와 소비자가 쌍방향으로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지향
커뮤니티 (Community)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지원
연결 (Connectedness)	다양한 매체들의 조합과 이들 사이의 링크를 통해 관계의 형성을 촉진함

출처: 한국정보산업연합회(2007)

4)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 링크나우, 링크드인, 패스 같은 서비스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급속히 확산된 최근 SNS로 이전 서비스와 구분될 수 있다.
5)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2012년 5월 11일 기준 2,672만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5,255만명의 50.84%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내, 2012).

그의 형태를 띤 관계 중심의 미디어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결합하면서 개개인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상호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2.연구 검토 분석틀과 연구대상

1) 연구 검토 분석틀

SNS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연구를 범주화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여러 접근법이 가능하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시기별로 범주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발표된 SNS 연구는 이런 시기뿐만 아니라 사회학 분야, 대상, 관련 개념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성격을 달리한다. 물론 이러한 시기 구분이 단계별로 뚜렷한 시점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이전 단계의 주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크게 시기와 특징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2〉는 이러한 분류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초창기 SNS에 관한 사회학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사회론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관심은 SNS가 구성되는 네트워크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속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온라인 혹은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보이지 않는 정보로 만들어진 세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원래 사이버 공간은 공상과학 소설 작가인 William Gibson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전자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기술하는 개념이다(Thil, 2009). 그런데 최근에는 사이버공간 개념이 기술적인 특징보다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사용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Morningstar, et al., 2003). SNS의 공간적 특징에 관한 연구는 바로 이러한 컴퓨터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자 사이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공간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SNS에서의 활동이 실제 오프라인에서 개인의 행위와 규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두 번째 종류의 SNS에 관한 사회학 연구는 사회자본론과 관련이 깊다. 이 유형의 연구는 이용자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서 강조되는 사회학적 개념은 신뢰와 사회자본이다. 신뢰는 개인이나 집단 같은 행위자 사이에 형성되는 사회적 구성체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다양한 종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행위자는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 행위자는 그러한 가능성이 가져다주는 일종의 위험을 분석하고 때로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신뢰가 없을 경우, 행위자는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Misztal, 1996; Putnam, 1993). 이처럼 신뢰의 문제는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가 주어진 현대사회에서 더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Giddens, 1984; McPherson, et al., 2006).

한편 이와 같은 신뢰를 통해서 형성되고 동시에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다. 자본은 보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축적된 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자본은 상호 관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부라고 볼 수 있다. 사회자본은 여러 수준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부

〈표 2〉 SNS에 대한 사회학 연구 검토 분석틀

분야	정보사회론	사회자본론	사회운동론/정치사회학
대상	공간	관계형성	사회적, 정치적 영향
개념	사이버 공간	사회자본, 신뢰	사회운동, 정치참여

르디외(Bourdieu, 1986)는 사회자본을 개인이나 집단이 다소 제도화된 관계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실제적이거나 가상적인 이익이나 기회에 대한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한다. 반면에 콜만(Coleman, 1988)의 경우 사회자본을 기능적인 면에서 정의될 때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구조에서 부여되는 것으로 그들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음으로 얻어지는 이익이라기보다는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와 규범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리고 퍼트남(Putnam, 1995)은 사회자본을 상호 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들로 정의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린(Lin, et al., 2001:6)은 사회자본이 행위자, 집단, 조직, 지역사회, 지역, 국가 같은 다양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보상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생한다고 본다.

세 번째 SNS에 관한 사회학 연구는 사회운동론 혹은 정치사회학과 관련이 깊다. 개념적으로는 사회운동, 정치 참여와 관련이 깊다. SNS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참여는 단순하게 온라인 참여로만 머물지 않는다. SNS 이용자의 확대와 소통의 확산은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쟁점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소통과정에서 형성된 여론은 오프라인에서 개인의 행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고 한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참여 개념에 대한 강조는 비교적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초창기 인터넷 커뮤니티가 참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았다. 이는 전통적인 대의 민주주의가 일반시민을 전체 사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배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런데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시민의 정보접근을 활성화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성화는 현대사회에서 약화된 지역사회와 그 안에서 고립된 구성원 사이의 관계 복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는 입장도 존재하였다(윤영민, 2000; 서진완 외, 2003; 송경재, 2005). SNS의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흐름과 유사하게 SNS의 이용이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의 인지, 태도, 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변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회운동, 정치참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장덕진, 2011; 백욱인, 2012).

2) 연구대상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연구 성과는 사회학 연구자가 포함되고 앞서 정의된 SNS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학술논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유지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즉 이러한 원칙에 부합한 연구 성과는 사회자본론에 근거하여 최근 SNS를 기반으로 한 구성원 사이에 상호작용과 관계형성을 다룬 연구 논문이다. 이러한 논문은 2010년 이후에 발표되고 있으며 그 개수도 매우 제한적이다.

물론 이러한 소수의 논문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이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다소 넓히고자 한다. 즉 시기, 분야, 종류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이러한 접근이 논점을 흐리게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논의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를 2010년 이후로 한정하지 않고 2000년 초반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이럴 경우 초기 SNS 서비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도 포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엄격한 의미에서 SNS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SNS와 상당히 많은 특징을 공유한다. 아울러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성과도 직접적이지 않지만 SNS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 성과를 포함하였다.

둘째, 분야를 기본적으로 사회학자가 포함된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사회학 학술지가 포함하였다. 아울러 학제간 연구 성과를 반영한 학술지도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셋째, 연구의 종류도 출판된 학술논문만을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함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 성과는 학술논문이 아닌 발표나 연구보고서 형태라도 검토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Ⅲ. SNS 연구 추이와 동향

1. SNS의 공간적 특성

온라인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네트워크이다. 개개인은 인터넷을 통해 상호간의 정보 공유는 물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되었다. SNS의 초기 형태였던 온라인 커뮤니티도 이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관심 분야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고 정보를 주고받았다. 때문에 초기의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의 초점은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인 미디어라는 미니홈피,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개개인들은 새로운 인맥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1인 미디어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표 3〉은 SNS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사회학 연구 목록, 주제와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SNS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공론장과 사회참여의 공간이라는 특징을 강조한 연구를 포함한다. 먼저 서이종(2003)의 연구는 Daum 커뮤니티 22개를 대상으로 내용연구와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외적 구조 – 소통양식과 회원구조 – 와 내적구조를 살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은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가입/탈퇴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지 편리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는 회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목적과 취지에 동감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권리행사를 외적, 내적으로 방해받을 수도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다양한 관심정도 및 참여정도를 가진 참여자들의 중층적 논의구조를 띠고 있어 소외된 고립자가 적고 다양한 소주제로 확산되어가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공격적인 논의 참여자들의 역할이 낮아서 논쟁점이 불분명해지고 논의가 치열하지 않으며 그 결과 참여자들 간의 친목 도모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구자순(2005)의 연구는 2004년 Daum 커뮤니티 내 6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하여 형성된 카페 회원 남성과 여성 각기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역할 상실로 소외되고 있는 고령층들에게 온라인 커뮤니티가 새로운 활동공간이 됨은 물론 적극적 사회참여와 자기개발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았다.

윤명희(2009)의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나타나는 청소년 참여의 특징을 감성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는 2008년 광우병위험인자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개설된 Daum '촛불소녀코리아'라는 커뮤니티의 게시판 콘텐츠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기간은 2008년 5월 17일 개설일로부터 7월까지의 기간으로, 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된 콘텐츠가 주요 분석대상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사회참여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오프라인 광장과 융합되는 탈경계화된 공간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이분법을 무위화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하고 구성한다. 또한 이 연구는 이러한 광장에서의 상호작용과 참여의 경험은 자율성과 연대감을 경험하는 활동 및 참여를 일상화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범주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비교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초기 온라인 커뮤니티가 공동체를 지향하는 서비스였다면 이후 등장한 1인 미디어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과 개인 미디어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보다 사적 공간의 기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항우(2006)은 2005년 4월 한 달간 싸이월드 메인 페이지에 소개된 미니홈피들 중 23개를 추출하여 거기에 게시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이용자들에게 가정과 직장과는 분리된 독립된 제3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니홈피의 주된 청중은 오랜 지인이나 새로이 사귀게 된 친구 등으로 이들은 '준거타자'로 설정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미니홈피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원하기만 하면 접근할 수 있는 개방된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용자들은 그것의 사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규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샛별 외(2006)은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온라인 공간의 특성과 현실세계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2005년 4월과 5월동안 서울지역 20-30대 대학생과 직장인 2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20대 대학(원)생 6명의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그곳에서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바 있다. 그들은 싸이월드 미니홈피라는 공간을 보다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으로 인지하는 사람들일수록 인상관리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서이종 외(2011)도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을 대비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라'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보 프로파일링을 사례로 삼아 사이버 공간에서 일상화된 정보프로파일링이 신상 털기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이것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를 어떻게 재경계화 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신상 털기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규범적, 법적 평가 이전에 이러한 신상 털기의 정보 프로파일링의 내적 동인과 동학, 그리고 그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들은 신상 털기는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3〉 SNS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사회학 연구

범주	저자(년도)	연구주제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공론장과 사회참여의 공간	서이종 (2003)	인터넷 커뮤니티와 시민사회	- Daum 커뮤니티 22개 - 내용분석, 연결망분석
	구자순 (2005)	고령층의 온라인 공동체 활동	- Daum 커뮤니티 60세 이상 남녀 각 100명 - 온라인 설문조사 (2004.9.23.~10.9)
	윤명희 (2009)	청소년과 디지털 참여	- Daum 커뮤니티 '촛불소녀코리아' - 내용분석 (2008.5.17.~7.30)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비교	이항우 (2006)	미니홈피와 비공식적 공적 생활의 조건	- 싸이월드 미니홈피 23개 - 내용분석 (2005.5.16.~5.25)
	최샛별 외 (2006)	싸이월드에서의 인상관리와 정보의 통제	- 설문조사 (대학생, 직장인 297명) - 면접조사 (대학생 6명)
	서이종 외 (2011)	신상털기 현상과 배태된 프라이버시	- Naver 커뮤니티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 내용분석
공간적 특성 변화	서이종 (2005)	사이버 문화와 공동체 문제	- 문헌연구

세 번째 범주는 공간적 특성의 변화를 다룬 연구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서이종(2005)은 'Daum, 프리챌, 네띠앙' 등의 커뮤니티 전체 개수와 커뮤니티의 주제별 개수를 통해 인터넷상의 온라인 커뮤니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는 1990년대 이후 개인화 과정 속에서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공동체와 달리 자발적인 공동체 및 결사체의 욕구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욕구에 기반하여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 공동체의 급속한 활성화를 낳았다고 본다. 때문에 2000년 초기 온라인 커뮤니티는 현실공동체의 사이버화 경향을 반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상에는 전통적인 연줄망인 학연, 지연 등의 커뮤니티들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하여 활동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후 온라인공간에서 새롭게 발생한 커뮤니티들이 새로운 사회적 유대관계를 만들어냄은 물론 개인의 표현기능이 높아진 미니홈피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들의 연결망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 관계 형성과 사회자본

초창기 SNS가 갖는 공간적 특성에 대한 관심은 이후 SNS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네트워크와 이용자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되었다. 관계형성과 사회자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연구는 SNS를 통해 형성된 상호관계의 특징과 원인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연구는 SNS를 통해 형성된 상호관계의 효과를 다루고 있다. 〈표 4〉는 SNS를 통한 관계형성과 사회자본 형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주제와 연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SNS를 통해 형성된 상호관계의 특징과 그 원인에 관한 사회학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다. 예를 들면, 김용학 외(2006) 등은 싸이월드 일촌 연결망과 기존의 오프라인 사회적 연결망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싸이월드 회원을 대상으로 100명씩 1000회 표집하여 총 10만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니스(Grannis, 2004)가 제시한 네트워크 샘플링 및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싸이월드의 회원 일촌 연결망 경로거리를 분석하였다. 또한 싸이월드 이용자들이 성별, 연령, 지역에 따라 어떤 속성을 지닌 사람들과 일촌을 맺는지, 유유상종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대수선형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들은 온라인에서 맺어지는 사회적 관계가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오프라인 관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것이 오프라인 관계에 대한 온라인 관계 맺기의 종속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연구는 싸이월드에서 맺어지는 일촌관계가 모두 기존의 오프라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윤명희(2007a)는 미니홈피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했었던 20대 대학생 이용자들 가운데 부산과 창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학생 3명과 남학생 6명을 대상으로 2006년 11월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윤명희는 한국사회에서 미니홈피는 개인중심적인 시스템구조와 아울러 관계지향적이고 비개인화된 집단의식이 두드러지는 비동시적이고 이중적인 커뮤니티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첨단화된 정보화와 전통적 집단의식, 개인화 시스템과 비개인화된 의식이라는 모순적인 요소가 혼재하는 한국사회의 독특한 일상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윤명희(2007b)의 블로그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 연구는 상호작용성과 연대성의 두 축에 따라 활동형, 은둔형, 파괴형, 대안형으로 블로그를 유형화하여 각 블로그 속의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블로그가 개인지향성이 강한 온라인 공간이자 개인을 넘어서는 블로그 간의 상호작용 및 집단적 차원을 띠고 있다. 윤명희의 연구는 한국사회에 블로그는 개인중심의 전형적인 서구사회의 블로그와 그 특성이 다르다. 한국사회에서 블로그는 개인지향

〈표 4〉 SNS를 통한 상호관계와 사회자본 형성에 관한 사회학 연구

범주	저자(년도)	연구주제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SNS를 통해 형성된 상호관계의 특징과 원인	김용학 외 (2006)	미니홈피 일촌연결망 구조분석	- 싸이월드 10만명 자료 - 연결망 분석
	윤명희 (2007a)	미니홈피 커뮤니티의 사회문화적 특징	- 싸이월드 미니홈피 20대 이용자 9명 - 면접조사
	윤명희 (2007b)	블로그의 사회적 유형분석	- 가입형, 설치형, 대안 블로그 - 내용분석
	이항우 (2009)	웹 2.0의 사회연결망사이트 이전과 이후의 온라인 사회관계	- 문헌연구
	조혜영 외 (2006)	청소년의 사이버 커뮤니티 참여와 사회관계 특성에 관한 연구	- 청소년 22명 (2005.6월~9월) - 면접조사
	배영 (2005)	사이버 공간의 사회적 관계	- 'I' 사 회원 5,000여명 - 설문조사, 클릭스트림데이터
	장덕진 외 (2006)	사이버 공간의 공동체와 연결망	- 잇이즈콤 포럼 28개 - 내용분석
SNS를 통해 형성된 상호관계의 효과	배영 (2003)	사이버 커뮤니티의 경험적 분석을 이용한 사회자본의 유형화	- 'I' 사 포럼 2개 - 내용분석
	장덕진 외 (2004)	사이버 공간의 개인 미디어를 통한 관계 맺기의 구조 분석	- IT WAREHOUSE 사이트 회원 6000여명 - 연결망 분석
	이장영 외 (2006)	미니홈피를 매개로 한 친교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서울소재 대학생중 미니홈피 이용자 507명 - 설문조사
	유승호 외 (2010)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자기확장성과 관계성	- 이론연구
	서문기 외 (2010)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회자본의 형성과 유지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 20대~40대 인터넷 사용자 대상 - 온라인 설문조사
	이혜인 외 (2011)	스마트폰 이용과 사회자본	- 스마트폰 이용자 20~30대 196명 - 온라인 설문조사

적이면서 동시에 관계지향적이다고 지적하였다.

이항우(2009)는 온라인 사회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웹 2.0 이전과 이후의 다양한 학술연구의 동향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웹 2.0 이전의 온라인 사회관계는 주로 유즈넷 뉴스그룹, 전자게시판, 대화방, 메일링리스트, 머드 등과 같은 사이트들을 중심으로 공통의 관심사에 관한 온라인 토론관계가 적용된 약한 유대관계이다. 반면 웹 2.0의 SNS에서 형성되고 있는 온라인 사회관계는 공통의 관심사를 매개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행위자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강한 유대관계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는 SNS의 주요 청중이 친한 친구나 가까운 친지이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그것을 친구관계의 유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혜영 외(2006)은 청소년의 SNS 사용과 상호작용의 특징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중요한 생활세계로 자리잡은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관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5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22명의 청소

년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채팅, 게시판 글쓰기와 댓글달기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고,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관계의 대상을 넓히기도 하지만 관계의 깊이는 오프라인상의 관계에 비해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이들은 온라인상의 사회적 위계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우선시되는 오프라인상의 관계와 비교했을 때 지식이나 정보 능력, 커뮤니티 회원 등급이 우선시되며, 대화주제도 일상사에 비해 주로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SNS를 통한 관계 맺기의 특징에 관한 연구는 그 원인과 조건에 관한 주제도 포함하고 있다. 배영(2005)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자들이 미니홈피나 블로그로 대표되는 개인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있고, 관계형성의 형태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경험적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그는 IT관련 기업인 'I' 사의 인맥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5,000여명의 속성자료와 인터넷상에서의 행동자료, 인맥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자료를 이용하였다. 배영의 연구는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기존의 공유경험을 중심으로 한 관계보다는 관심과 필요에 의한 관계망의 형성이 보다 활발히 나타나고, 행위자들의 관계형성에 대한 적극적 태도와 상호작용의 빈도가 관계망의 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장덕진 외(2006)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잇이즈콤 포럼 28개의 게시물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상호작용, 정서적 만족감, 연령(특히 젊은 세대), 행위자의 적극적 태도 등이 뒷받침될수록 사이버 공간의 사회적 관계가 '열림'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특히 1인 미디어를 통한 친구 맺기의 경우 행위자의 적극적 태도나 접촉의 정도와 같은 요소가 관계망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함이 나타났다. 아울러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자가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다른 하나의 사회적 공간을 가지게 된다. 장덕진과 배영의 연구는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의 사회적 공간에서의 경험은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연구 성과들은 SNS를 통해 형성된 상호관계의 효과에 주목한다. 배영(2003)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현대 사회에서 사회자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02년 I사에서 회원들 간의 포럼활동이 활발한 2개의 포럼 – e공감, Wireless Internet Forum – 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 내부에서 형성되는 강한 유대에 기반을 둔 관계가 커뮤니티 운영에 매우 큰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는 약한 유대와 익명성을 기본 요소로 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강한 유대와 대면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로의 전화(轉化)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개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사회자본의 확장을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SNS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네트워크와 이용자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은 1인 미디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장덕진 외(2004)는 'IT WAREHOUSE' 사이트의 'IT인맥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회원 6,000여명의 노드 수와 링크 수를 분석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회원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분석한 바 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이 더 이상 단순한 정보의 교류나 특정 목적하의 모임정도가 아닌, 미니홈피와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전인적 드러내기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때문에 그들은 관련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콘텐츠'라는 관점에서 사이버 공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장영 외(2006)도 SNS가 가져다주는 효과 특히 오프라인에서 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이들은 2004년 서울소재 대학생중 미니홈피 이용자 50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일촌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니홈피가 대학생들의 대인교류의 매개체로서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남자의 경우 동성과 교제할 때 자신보다 나은 상대와 더 가깝게 지내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성과 교제할 때에는 의견이나 정서적으로 유사한 상대와 더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 실제에서 자주 접촉하는 상대방일수록 미니홈피 상에서도 가까이 지내고 자주 교류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미니홈피가 대인교류의 매개체로 활용되기보다 같은 생활영역 안에 있는 사람과의 친분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유승호 외(2010)은 보다 추상적인 수준에서 SNS의 영향과 효과를 다루고 있다. 이들은 SNS에 기반을 둔 공간이 창출하는 자원(Resource)과 보상(Reward)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오프라인의 관계를 공고하게 만든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기존의 오프라인의 관계를 확장한다. 이렇게 디지털 영토는 기존 물리적 영토를 강하게 다져주고,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를 촉진시킨다. 아울러 그들은 이러한 복잡한 그물망 속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행위가 관계의 권력화를 양산해내기도 하고, 연계화를 통한 권력화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서문기 외(2010)은 20-40대의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NS가 사회자본의 형성과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밝혔다. 그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SNS 참여 여부가 인터넷의 활용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자본의 형성과 유지를 둘러싼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구조적 관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혜인 외(2011)도 스마트폰의 활용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20-30대를 대상으로 2011년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총 10일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196부(남성 106명, 여성 97명)이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이용 동기는 부분적으로 사회자본의 증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스마트폰 이용정도를 분석에 투입시킬 때 그 영향은 대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자본의 증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스마트폰의 이용 동기보다는 이용정도인 것이다. 그들은 사회자본의 증진을 위한 미디어의 활용에 있어서 기반적인 요소인 이용시간이나 활용도보다 소통의 정도가 더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3. 사회운동과 정치참여

최근 SNS에 관한 사회학 연구의 특징은 SNS의 양적 성장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가 SNS를 통해 형성된 이용자 집단이 현실 사회에서 갖는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크게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와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표 5〉는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연구의 주제와 연구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연구는 주로 집합행동, 사회운동을 다룬다. 먼저, 김경미(2006)은 오프라인 집합행동인 촛불집회에 대한 합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원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김경미는 본 연구에서 Daum '미군여중생살해사건 서울모임' 카페의 2002년 7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자유게시판 게시글에 대한 내용분석과 촛불집회 참가 경험이 있는 21명을 대상으로 2003년 6~8월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김경미의

〈표 5〉 SNS의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사회학 연구

범주	저자(년도)	연구주제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사회운동	김경미 (2006)	온라인에서의 집합행동에 관한 합의동원	- Daum '미군여중생살해사건 서울모임' (2002.7.28~11.30) 내용분석 - 촛불집회 참가 유경험자 21명 대상 면접조사 (2003.6월~8월)
	백욱인 (2012)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사회운동의 변화	- 문헌연구
정치참여	전영아 외 (2010)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유형별 사회자본이 정치적 의견표명과 호응에 미치는 효과	- 전자기기 동호회 'I' 커뮤니티, 인테리어·살림 동호회 'R' 커뮤니티 (2008.5.1~6.30) - 내용분석
	김경미 (2009)	미국 대통령 선거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 문헌연구
	장덕진 (2011)	트위터 공간의 한국정치	- 정치인, 일반인 트위터 계정 (2010.9.30까지 수집된 계정) 연결망 분석 - 1,318명 대상 설문조사 (2010년 9월)
	장덕진 외 (2011)	한국인 트위터 네트워크의 구조와 동학	- 일반인 트위터 계정 (2010.8.1~9.30까지 수집된 계정) - 연결망 분석
	김정훈 (2012)	상식, 정의, 공유의 관점에서 본 2012년의 한국정치	- 문헌연구

연구는 분노의 감정, 가치 및 신념증폭 등이 극적인 사건 전개에 따라 역동적으로 맞물려 집합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백욱인(2012)는 SNS와 스마트폰으로 매개되는 정치는 대의제 정당정치라는 제도권 정치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한편 무정형의 대중결집과 해산이라는 대중형성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즉 트위터를 비롯한 SNS 활용으로 촉발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은 시민의 정치참여 방식과 사회운동 형식을 바꾸면서 결국 정치지형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SNS 플랫폼 정치는 '네트워크 포퓰리즘'이라는 현상을 낳고, 정치의 영역에서도 팬덤문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한다. 그는 연결과 추종이 자발적이고 수평적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위계적인 대중 추수와는 다르지만 '냉소적 포퓰리즘'과 '열광적 포퓰리즘'을 반복하는 동안 성찰적 민주주의의 힘과 지속성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연구는 정치참여를 다루고 있다. 전영아 외(2010)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이 형성하는 사회자본[6]이 커뮤니티 내에서 정치적 호응도를 이끌어내는데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그들은 2008년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전자기기 동호회인 'I' 커뮤니티와 인테리어 · 살림 동호회인 'R' 커뮤니티 내 '촛불, 광우병' 등을 검색어로 분류한 후 이에 해당하는 글들을 수집하여 촛불집회가 시행되기 이전까지 축적된 사회자본과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라는 정치적 이슈를 바탕으로 두 개의 온라인

6) 이 연구에서 사회자본의 유형은 축적동기(도구적/완성적)와 상호작용의 강도(강한/약한)를 교차시켜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커뮤니티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커뮤니티 모두에서 완성적(Consummatory) 게시판에서 활발히 활동할수록 정치적 의견표명을 더욱 활발하게 한 반면, 도구적(Instrumental) 게시판에서의 활동은 정치적 의견표명을 오히려 억제하거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정서적 요소가 정치적 발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경미(2009)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 부각된 SNS의 정치적 잠재력을 세 가지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김경미의 연구에 따르면, SNS를 이용해온 일상적 관행이 정치자원에 대한 예상치 못한 노출로 이끌고, 이러한 노출이 참여행위로 연결된고 SNS에서는 '친구망의 정치'가 강화된다. 즉 SNS에서 손쉽게 형성되는 정치 후보와의 친구관계는 후보자와 지지자의 관계를 개인화하고 '우리'라는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득표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리고 SNS에서 정치후보자는 효율적인 타깃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김경미의 연구는 정치후보자가 SNS에서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사람들과 손쉽게 친구망을 형성할 수 있고, 특정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을 선별해 그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장덕진(2011)은 트위터의 정치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0년 9월 30일 기준으로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는 145명의 정치인 계정과 같은 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집된 1,113,365개의 한국인 계정 및 동 계정에서 작성된 77,452,090개의 트윗을 분석하였다. 또한 트위터 이용자들과 비용자들의 정치적 선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2010년 9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318명의 응답자중 트위터 이용자는 111명이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정치인들의 트위터 활동은 트윗이나 팔로잉과 같은 노력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팔로우, Reply, RT 등과 같은 반응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트위터 이용자 집단과 비이용자 집단의 정치적 선택이 다르다. 트위터 이용자 집단이 비이용자 집단에 비해 정치무관심이 낮고, 보다 진보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장덕진 외(2011)도 2010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의 한국인 트위터 계정을 크롤링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트위터 네트워크의 구조와 동학을 파악하였다. 그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트윗의 4분의 3이 RT 혹은 리플라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트위터는 소통과 담론의 공간임을 밝혔다. 또한 트위터는 오프라인의 전통매체에 대응하는 대안 매체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견과 정보를 전파하는 수단인 RT는 재난상황과 정치사회적 사건에 대해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 시민들은 속보전달, 주의사항, 정책평가, 시민들끼리의 상호부조의 순서로 트윗이 전파되지만, 정치사회적 사건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질 경우 사람들은 같은 논쟁의 틀 안에서 정반대의 개념이나 사례들을 동원하여 논쟁하거나 상대가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범주를 도입함으로써 논쟁의 틀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일어난다고 지적하였다.

김정훈(2012)는 2012년 한국 정치는 정당정치의 위기, 세대갈등, 안철수 현상, SNS 및 투표행동주의, 시민정치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SNS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그는 세대갈등의 원인이며 결과인 SNS에 대한 평가와 투표행동주의가 그 실체보다 과장되었다고 주장하였다.[7] 즉 10.26 보선에서 SNS의 영향 및 투표행동주의의 지표인 2030세대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그는 또한 인터넷 공간이 SNS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7) SNS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다른 분야의 연구 논문에서는 SNS가 정치현실에서 갖는 파급효과가 언급되고 있다(박상호, 2012; 설진아, 2012).

SNS가 갖는 놀라운 확산성, 실시간성에도 불구하고 SNS는 단지 소셜 미디어의 한 종류일 뿐이며, 특히 트위터는 콘텐츠 생산의 장소이기 보다는 유통의 장소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콘텐츠의 경쟁력이 결정적이다. 따라서 SNS에 대한 신화와 괴담을 넘어 소셜 미디어와 SNS, 그리고 그것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차분히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Ⅳ. 요약과 토의

SNS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이러한 점에서 넓게는 인터넷 초기 취미나 관심분야가 유사한 사람들이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거나 친목을 형성하기 위해 형성했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부터 좁게는 사용자 개개인이 중심이 되어 다른 사용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미니홈피,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에 각종 정보통신기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SNS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SNS의 확산 원인과 특징, 그리고 그 사회적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NS에 관한 사회학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학적 개념을 적용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갖는 특징과 함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의 분류틀을 사용하였다. 즉 지금까지 SNS에 관한 사회학 논의는 SNS가 갖는 공간적 특성, 관계형성, 사회적 영향 등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초창기에는 SNS의 공간적 특징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연구는 정보사회론에서 다루고 있는 사이버공간에 관한 논의처럼 SNS가 형성한 공간이 갖는 다양한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에서의 참여가 개인의 태도와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그 다음으로 SNS에 관한 사회학 연구는 참여와 사회자본 개념을 기반으로 SNS를 통해 어떻게 관계와 사회자본이 형성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사회학 분야에서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공통적인 관심은 SNS를 기반으로 어떠한 상호관계가 형성되고, 어떠한 조건이 사회구성원 사이에 형성되는 신뢰와 사회자본을 확충하는가에 있다.

마지막으로 SNS에 관한 사회학 연구는 SNS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SNS를 통한 사회운동과 정치참여를 주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SNS가 현실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의 형태와 정도에 관해서 모든 연구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SNS가 갖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그 영향력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평가하는 입장도 있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의 흐름을 검토해 볼 때, 몇 가지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적어도 사회학 분야에서 SNS의 급증과 확산 이유에 관한 연구 성과가 충분하지 않다. 이 주제에 관한 연구가 SNS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SNS의 급증과 확산은 필연적으로 한국사회의 특징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특징을 SNS와 연계하여 살펴보는 사회학 연구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8)]

둘째, SNS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연구는 주로 SNS를 통해 형성되는 공간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SNS의 공론장적 특징 혹은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의 혼재에 관한

8) 하나의 접근법은 국제비교사회연구가 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그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사회의 특징과 SNS의 확산현상을 연계해 본다면, 이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논의를 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 SNS를 통해 형성된 공간이 개인, 집단, 사회 전체 같은 여러 수준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신뢰와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도 다른 종류의 연구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신뢰와 사회자본의 확대를 통해 한 사회 내에서 개인과 집단 같은 여러 행위자 사이에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결국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고 사회통합과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SNS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자본을 확충시키고 사회통합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SNS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정치참여나 사회운동 같은 다소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영향력의 실체에 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급증하는 SNS 이용자로 인해 사회 여러 분야에서 SNS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효과에 관해서는 다소 논란이 따르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가 미시적 수준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물론 상호관계의 유형과 방식에 관한 연구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개인의 복리나 감성적 지원(Affective Support) 같은 보다 주관적인 측면에서 SNS의 영향력에 관한 사회학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고상민·황보환·지용구 (2010).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사회적 자본: 한국과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5(1): 103-118.

구자순 (2005). “고령층의 온라인 공동체 활동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6: 241-272.

김경미 (2006). “온라인에서의 집합행동에 관한 ‘합의동원’.” 「경제와 사회」, 71: 154-178.

김경미 (2009). “미국 대통령 선거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정보와 사회」, 15: 1-26.

김신동 (2008). 「대이동의 시대와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용학·박세웅·전소영 (2006). “온라인 사회연결망의 구조분석: 싸이월드 일촌 연결망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3(4):167-185.

김정훈 (2012). “안철수 현상, 그리고 희망 혹은 희망고문: 상식, 정의, 공유의 관점에서 본 2012년의 한국 정치.” 「경제와 사회」, 93: 104-136.

박상호 (2012). “SNS의 여론형성과정과 참여행태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58: 55-73.

박찬웅 (2012). “공적제도와 SNS는 상호보완적 公論場.” 「국민일보」. 3월 20일.

배영 (2003). “사이버 커뮤니티의 경험적 분석을 이용한 사회자본의 유형화.” 「한국사회학」, 37(5): 161-186.

배영 (2005). “사이버 공간의 사회적 관계: 개인미디어를 이용한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5): 55-82.

백욱인 (2012).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사회운동의 변화.” 「동향과 전망」, 84: 130-159.

서문기 · 오주현 (2010).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회자본의 형성과 유지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13: 111-138.

서윤교·김주완·조소연 (2011). “기업의 성공적인 SNS 도입 전략.” 「Information System Review」, 13(3): 1-14.

서이종 (2003). “인터넷 커뮤니티와 시민사회.”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Ⅱ) 발표논문.

서이종 (2005). “사이버 문화와 공동체 문제.” 한국사회학회 광복6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 발표논문.

서이종·손준우 (2011). “‘신상털기’ 현상과 배태된 프라이버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8(4): 49-87.

서진완·박희봉 (2003). “인터넷활용과 사회자본 -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1): 27-49.

설진아 (2009).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진화양상과 사회적 영향.” 「한국언론정보학회」, 12: 35-57.

설진아 (2012). “이집트 민주화 혁명에서 SNS와 소셜 저널리즘: 페이스북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58: 7-30.

성민경·정연돈 (2012). “SNS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및 보

호방안." 「한국통신학회논문지」, 29(5): 92-97.
송경재 (2005).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보」, 39(2): 423-443.
송경재 (2010). "IT기반 소통의 진화: SNS와 스마트폰이 결합된 소셜 미디어." 「지역정보화」, 64: 4-13.
오세욱 (2012). "[SNS세상은] 지금 김군, 요즘 여자친구와 사이 안 좋나?." 「매일경제」. 5월 25일.
유승호·김형일·장예빛 (2010). "인터넷 미디어, 욕망의 투영망: 라깡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
윤명희 (2007a). "미니홈피 커뮤니티의 사회문화적 특징: 대학생 이용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1: 83-122.
윤명희 (2007b). "블로그의 사회적 유형분석: 1인 커뮤니티의 다층화." 「한국사회학」, 41(1): 156-193.
윤명희 (2009). "청소년과 디지털 참여." 「한국사회학」, 43(5): 210-244.
윤성이 (2008). "17대 대선에 나타난 온라인 선거운동의 특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42(2): 203-230.
윤영민 (2000). "사이버 공간의 성장: 지역발전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편), 「사이버시대의 삶의 질」, 83-94.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이명진 (2012).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와 공공성의 특성 변화: 영역, 경계, 행위자, 배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3(1): 63-81.
이장영·박용미·이은실 (2006). "개인 웹 페이지를 매개로 한 친교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보와 사회」, 9: 1-33.
이정내 (2012). "스마트폰 사용자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5월 14일.
이항우 (2006). "미니홈피와 비공식적 공적 생활의 조건: 공/사 경계의 조율." 「한국사회학」, 40(3): 124-154.
이항우 (2009). "온라인 사회관계: 웹 2.0의 사회연결망 사이트 이전과 이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3): 243-286.
이혜인·배영 (2011). "스마트폰 이용과 사회자본: 스마트폰 이용동기와 이용정도가 사회자본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보와 사회」, 21: 35-71.
장덕진 (2011). "트위터 공간의 한국정치." 「언론정보연구」, 48(2): 80-107.
장덕진·김기훈 (2011). "한국인 트위터 네트워크의 구조와 동학." 「언론정보연구」, 48(1): 59-86.
장덕진·배영 (2004). "사이버 공간의 네트워크 실험: 개인 미디어를 통한 관계 맺기의 구조 분석."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발표논문.
장덕진·배영 (2006). "사이버 공간의 공동체와 연결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 175-219.
전영아·강정한 (2010).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유형별 사회자본이 정치적 의견표명과 호응에 미치는 효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3): 177-226.
정용인 (2011). "안철수, 박원순 현상의 공통점은 SNS 민주주의: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SNS 여론 흐름이 승패 갈라." 「주간경향(946호)」. 10월 18일.
조혜영·김종길 (2006). "청소년의 사이버커뮤니티 참여와 사회관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227-261.
최샛별·엄인영 (2006). "싸이월드에서의 인상관리와 정보의 통제." 「정보와 사회」, 10: 1-30.
통계청 (2012). 「한국의 사회동향 2011」. 대전: 통계청.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07). 「웹 2.0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서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New York: Greenwood.
Boyd, D. M. & Ellison, N. B.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210-230.
CNET (2011). "Apple reportedly fires employee for negative Facebook post." http://news.cnet.com/8301-17852_3-20128692-71/apple-reportedly-fires-employee-for-negative-facebook-post. (Retrieved on May 25, 2012).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Grannis, Rick (2004). "Sampling the Structure of

Large-Scale Social Networks." Proceedings of the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 Methodology: Recent Developments and Applications in Social Research Methodology. Amsterdam, the Netherlands.

Jenkins, H. (2006). *Convergence Cultur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Lin, N. & Cook, K. & Burt, R. (2001).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ldine DE Gruyter.

McPherson, Miller & Smith-Lovin Lynn & Brashears, Matthew E. (2006). "Social Isolation in America: Changes in Core Discussion Networks over Two Decad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 353-375.

Misztal, Barbara A. (1996). *Trust in Modern Societies: The Search for the Bases of Social Order.* Cambridge, UK: Polity Press.

Morningstar, Chip & F. Randall Farmer (2003). *"The Lessons of Lucasfilm's Habitat."* In Noah Wardrip-Fruin & Nick Montfort (eds.), The New Media Reader, Cambridge, MA: The MIT Press.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65-78.

Thil, Scott (2009). "March 17, 1948: William Gibson, Father of Cyberspace." http://www.wired.com/science/discoveries/news/2009/03/dayintech_0317. (Retrieved on June 02, 2012).